

'목포의 눈물' 아코디언 연주하는 김현남 수녀



에세이집 '겨울빨래 수녀한테 걸렸니?' 펴내 "새 삶 찾는 젊은이들에 수익금 사용할 것"

그는 수녀원에 들어간 지 10년 만인 1970년 종신서원 선물로 아코디언을 받았다.

지금도 '라스파뇨라'는 가장 아끼는 곡이지만, 요즘 그가 주로 연주하는 곡은 따로 있다.

'눈물 젖은 두만강', '절감산', '소양강 처녀', '내 나이가 어때서' 등 트로트가 주요 레퍼토리다.

노인대학, 성당, 교도소 등지에서 하는 웃음치료 강의가 그 무대다.

그는 "아베마리아" 같은 곡에는 할머니들 박수에 힘이 없었다며 "트로트를 하면 기립박수가 나올 것 같은 예감에 한 곡당 500원 넘게 연습했다"고 말했다.

요즘도 강의가 없는 날에는 세 시간 넘게 아코디언을 연습할 정도로 그의 노력과 도전은 끝이 없다.

10년전 웃음치료가 되기에 앞서 그는 '수행자의 대모'였다.

19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간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를

다니다며 수행자들을 보살폈다.

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수녀가 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지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김 수녀는 '가난한 자를 위해 일하라'는 성가 소비녀회 창설자 성재덕 신부 유언을 떠올리며 교정사목 소임을 자청했다.

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다가 하루아침에 수행자들과 지낸다는 게 겁이 날 때도 있지만 김 수녀는 험악한 사내들도 아들처럼 대했다.

그는 "머리 뺨뺨 쥐고 무서운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웃(수)도 푸르스름하게 예뻐 보이고 사람들도 다 착해 보였다"며 "콩깍지가 끼여서 그런 것"이라고 했다.

조폭 수녀, 율패 수녀, 불도저 수녀 등 '거친' 별명도 대부분 이때 붙었다.

그는 "유치원 수녀 때는 말도 예쁘게 했는데, 그놈들하고 살다 보니 달라졌다"며 "수녀원에서 습관적으로 욕이 나올 때도 있다"며 웃는다.

김 수녀는 최근 60년 가까운 좌충 우돌 수녀 생활 이야기를 풀어낸 '겨울빨래 수녀한테 걸렸니?' (예지출판사 펴냄)을 출간했다.

책에는 독실한 천주교 집안 넷째 딸로 태어나 '절대음감'을 자랑한 어린 시절부터 수녀가 돼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 하며 봉사활동을 펼친 에피소드들, 웃음치료를 변신해 또 다른 소임을 다하는 이야기까지 빼곡히 담겨 있다.

제목에 등장하는 '겨울빨래 수녀'는 그가 가장 아끼는 별명이다. 잘 마르지 않는 겨울빨래에 빗대 '못 말리는 수녀'라는 뜻이다.

교도소에서도 해결사였던 그는 이가 빠진 무기수에게 틀니를 해주고, 과수원에서 포도를 한 트럭 열 어와 재소자들에게 살것 먹이기도 했다. 교도소 측에서는 술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며 포도 반입을 제지했지만 "내가 책임지겠다"고 우겨 기어이 통과시켰다.

이 외에도 여장부 수녀의 파란만장한 무용담이 끝없이 이어진다.

그에게는 교도소 등지에서 만난 '아들'이 많다.

인터뷰 도중 걸려온 한 남자 전화에 그는 "네가 내 보람이고 희망"이

라며 진짜 아들처럼 진심 어린 응원을 보였다.

신용불량자가 돼 삶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김 수녀를 찾았다가 용기를 얻어 새 삶을 사는 젊은이었다.

이번 책에서 나오는 수익도 그를 돕는 데 쓸 거라고 한다.

"내 통장에는 3만원 밖에 없지만 가난한 이들 돕는 게 내 금지야. 나 같이 산 사람 나와보라고 해"라며 호탕하게 웃던 김 수녀에게 앞으로 의바람을 묻자 갑자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.

그는 "엄마가 교도소에 있는 아기가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"며 "젖먹이들을 잘 키워 엄마가 출소하는 날 안겨주도록 하고 싶다"고 말했다.

출소한 사람 가운데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, 장애인들을 위해 지난 2001년 청주에 '하늘빛자리'라는 이름의 출소자 집이 마련됐다.

김 수녀가 방방곡곡 뛰어다니며 갖은 노력 끝에 만들어 낸 공간이다. 이곳에서 수녀들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서 교도소에 갇힌 아이들이 잃지 않도록 하는 게 그의 마지막 바람이다. /연합뉴스



광주전남지방부청, 복무관리 신규담당자 교육

광주전남지방부청은 18일 3분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신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. /광주전남지방부청 제공



목포경찰,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캠페인

목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용당동 일대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다. /목포경찰서 제공



완도해경, 민·관 해안방제 합동훈련

완도해양경찰서는 18일 장흥 수문해수욕장에서 해안가 기름유입 대비 해안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. /완도해양경찰서 제공



담양소방서, 첨단자어린이집 소방안전교육

담양소방서는 18일 첨단자어린이집 교사 및 원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. /담양소방서 제공



화순소방서, 신규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

화순소방서는 지난 17일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현장활동 보조에 필요한 기본 교육훈련을 실시했다. /화순소방서 제공

전남청장, 무안경찰과 함께하는 치안현장 간담회

애로사항 청취·문제점 토론 등 치안 활성화 방안 논의

전남지방경찰청(청장 최관호)은 18일 무안경찰서에서 '경찰이 곧 시민이고, 시민이 곧 경찰이다'라는 주제로,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, 이을신 무안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서 각 부서 직원들과 협력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날 치안현장 간담회는 중요사건 발생지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순회로 진행됐다.

현장답사는 지난 8월 특수강도사건이 발생했던 무안읍의 한 공원을 찾아 'CCTV를 확충하고, 가시적이고 체계적인 112순찰활동을 전개해 범죄자의 범의를 억제하자'는 등의 범죄예방 대책이 제시된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졌다.

뒤이어 이어진 간담회에서는, '신학기 학교폭력 근절, 사이버 성폭력 예방' 등 치안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문제점을 토론했던 시간을 가졌

으며,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시민-경찰의 협력관계 강화와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에 이야기를 나눴다.

특히, 이날 참석자들의 가장 큰 지지와 호응을 얻었던 시간은 전남청장의 자유토론 시간이었다. 상호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, '제목 입은 시민'으로서의 경찰

상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격식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가 계속됐다.

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"경찰의 역할과 도리를 다해, 시대 흐름에 걸맞는 바르고 유연한 법 집행과 시민과 경찰이 하나 된 공동체 조성을 통해, 보다 정의롭고 따뜻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"고 당부했다. /윤규진 기자 jin2001@



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무안경찰서에서 '경찰이 곧 시민이고, 시민이 곧 경찰이다'라는 주제로 치안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. /전남지방경찰청 제공



광주은행은 18일 제31향토보병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1천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. /광주은행 제공

광은, 추석맞이 지역 향토부대 방문

제31사단 장병들 격려·위문금 전달

광주은행(은행장 송종욱)은 18일 오전 제31향토보병사단(사단장 소영민)을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1천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.

지역 방호와 대민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문 방문을 실시한 광주은행은 말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로하

고 격려했다.

송종욱 은행장은 "지역의 국토방위와 더불어 지역민을 위한 각종 대민지원 활동을 해주는 군 장병들이 있어 든든하다"며 "추석 명절에도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장병 여러분의 덕분"이라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 /정승현 기자 jsh9668@

생활게시판

생활소식 게재해 드립니다
E-mail 2580@jndomin.kr
팩스 062)227-0084

I 등산

- ▲광주청록산악회=19일(수) 충북 영동 월류봉(400.2m) 노근리 평화공원,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6시 50분, 교직원공제회관 7시, 문예회관 후문 7시 10분, 동광주진입로승강장 7시 20분 010-8612-4504, 010-3000-1134
- ▲광주자연보전단사회=10월 14일(일) 경남 울산시 신불산(1159m) 역새산행, 영주체육관 5시 40분, 무등경기장 6시, 동광주휴플러스 6시 20분 010-3666-3291, 010-2663-0304
- ▲빛고을무지개산악회=10월 21일(일) 광주시 화담산, 영주체육관 6시, 학동중심사립구지하철역 3번출구 6시 20

분, 광주역 6시 40분, 문예회관 후문 6시 45분, 동광주웨딩프라자 6시 50분 010-3620-2002

▲빛고을무지개산악회=11월 18일(일) 창원 저도, 영주체육관 6시, 학동중심사립구지하철역 3번출구 6시 20분, 광주역 6시 40분, 문예회관 후문 6시 45분, 동광주웨딩프라자 6시 60분 010-3620-2002

I 알림

- ▲신용사회남들기시연연무 무료상담=매주 월-금 오후 5시까지, 신용불량자 등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무료상담 가능 062-226-9001
- ▲광주-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=

- 13세미만 아동·지적장애인 대상 여성부 지원 성폭력상담기관, 응급진료와 상담, 치료, 자문변호사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제공 062-232-1375
- ▲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지원센터 위탁부모=부모 사망, 이혼, 실직, 가출,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-351-1206
- ▲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'법률출타' 무료상담=민사·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,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 서비스 지원 월-금 오전 10시-오후 5시 061-285-1161
- ▲광주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무료상담=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아동·청소년·부부·다문화 등 무료 가족상담 062-366-9500
- ▲열린마음상담센터=정신건강·중독 무료상담(음주·우울·불안·스트레스·치매·인터넷),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, 매주 월-금요일 오후 2-6시. 062-526-3370

- ▲화순호사랑노인복지센터 무료방문 교육=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교통반은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-373-8865
- ▲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=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, 학생 미혼모단기위탁 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, 무료로 지원 062-232-1313
- ▲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=한부모 가정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(1-3급), 중증 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간병서비스를 제공. 광주서구지역지원센터 062-351-3029
- ▲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, 인지능력향상, 무료간병사파견사업=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지원센터 062-351-3029
- ▲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=남구중독관리센터에서는 5대 중독(알코올, 인터넷, 마약, 도박, 니코틴)에 대한 상담 및 흥

- 보 캠페인을 진행 062-412-1461
- ▲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지지서비스=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(가정방문) 제공(주 5일 운영) 062-233-0468
- ▲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=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도우미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. 광주서구지역지원센터 062-351-3029
- I 모집
- ▲북구한울복지재단 '참고운소리단' 가곡 노래교실 회원=북구한울복지재단 '참고운소리단'에서는 함께할 55세 이상 남녀 회원 모집 010-9440-2637
- ▲광주가정위탁부모 모집=부모의 사망, 이혼, 실직, 가출, 학대 등으로 아이들이 친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때,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해 보호해 주실

- 위탁부모를 모집 062-351-1206
- ▲자원봉사자 회원 모집=매월 셋째주 넷째주 토요일 오전 정신지체시설 방문해 가족처럼 음식봉사 함께 하실분 010-3608-6911
- ▲외국어전문자원봉사자 모집=광주에서 개최되는 구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대화 가능한 분, 영어·일어·중국어·불어·독일어 등,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062-613-5584
- ▲카운셀러 아카데미 회원=6개월 교육(매주 목요일 주1회) 주야간(주간반 오후 1시30분-4시30분 야간반 오후 7-10시), 심리학 상담학 인간관계 훈련 062-226-2211
- ▲책문사 동아리 회원=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. 자격제한 없음. 가입문의 광주시세마화회 062-361-4680
- ▲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=미술 치료·언어치료, 전화·내방 접수 가능. 비용 1만8천원 061-322-8991-2